감비아를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들께

2022 년 8 월 14 일 뉴카슬

요한계시록 3.14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가…"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졸라포니 성경은 출판후 올 6 월 13 일에 감비아로 한국에서 배송이 되었습니다. 감비아 성서공회 주최로 봉헌식을 예정했으나 재정관계로 저희들에게 맡겨 졌습니다. 모든 봉헌식 일정과 제반행사를 감비아 성서공회 주최로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일주일을 앞두고 경비예산이 없다고 통보를 받고 급작스럽게 봉헌식 준비로 브라이언 선교사가 봉헌식장과 봉헌에 관련된 제반 준비를 해내야 했습니다. 이에 복음교단 총회장 이신 에두워드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연합하여 봉헌예식은 예정대로 7 월 2 일 주님이 정하신 귀한 날에 올려 드렸습니다. 봉헌식을 통해 졸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열심과 신실함을 참석하신 교계의 모든분들과 각 단체의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유일한 기독교 사무차관이신 루이스멘디 (아다마 바로우 대통령실에서 보내심)도참석, 감비아 성서공회, 졸라 문맹퇴치 교사들, 일반 성도님들도 함께하여 성경번역 사역의 결실이 주님의 역사하셨음에 찬양과 경배, 감사를 올려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슬렘국가라고 자처하는 감비아는 국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봉헌식을 보도방송해 기독교인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존재감과 자존감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고, 더 나아가 자부심과 사기가 고취되었고, 교계의 연합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날 심미란 선교사 파송교회인 "경북 점촌제일교회(합동장로)" 에서는 담임이신 계성인 목사님 (원로 이정호목사님)과 3 분의 장로님과 청년회장 한분 총 5 명이 봉헌식에 귀한 참석하시고 그간의 노고에 많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점촌제일교회는 심미란 선교사가 신약번역을 위한 교육기간부터 구약 성경번역 마감까지 27 년간을 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물질후원도 하셨고 사랑으로 헌신해 주셨음에 머리조아려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연합성서공회의 성경감수를 맡으신 롭쿱스, 파비안 다필라, 크리스챤 은톤델레박사님들과 지역번역사님들, 언어 조력자로 시작해서 성경번역에 참여한 바카리 자주목사님, 폐결핵으로 몸져 누우면서도 성경번역을 도운 화브라마 지바, 톰봉 바지 전도사님들 이 귀한 3 분들을 주님께 올려 드리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동역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성경번역 사역에 관한 주신 비젼과 주님을 향한 신뢰하도록 하시고, 지혜와 용기 주셨으며,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에 심어주시고 인내로 다져 주신 은혜, "**내가 나 된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고린도전서 15.10)** 되뇌이며 감사를 올립니다.

기도 동역해주신 한분한분께 지면으로나마 머리 조아리며 감사 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와 펴신 손들의 자취가 아름답게 졸라족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졸라족들과 나누게 됩니다. 한자한자 컴퓨터를 치고 수정, 편집하던 자리를 기억합니다. 성경의 한쪽한쪽마다 번역에 동역자님들의 기도의 땀과 수고도 베여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은 졸라족 영혼들에게 스미어들것 입니다. 졸라족들이 살아계신 주를 시인하고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주의 이름이 곳곳에서 선포되고 높여지고리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 족속에게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마른뼈들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기적을 소망합니다. 이 족속이 진정히 참예배자들로 서고, 시편 34.8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찌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일상에서 경험하며** 창조자의 능력과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의 복을 누리며 **"주의 말씀은 내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105)** 외치며 예수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졸라족이 들고 세상에 나가는 아름다운 발걸음들로 타 족속들에게 선포하며 서부아프리카의 선교사를 보내는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손만대 졸라족속이 왕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며 승리의 삶의 소유자들이 되고 영적 유산을 누리고 천국잔치에 참여를 소망하는 갖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찬양과 기도제목:

1. 부활절에 세례식에 시바노 까구물럭의 “씨야카” 형제 (웰링가라 학사방)와 7 월에는 올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지팡가마을의 빈타(비얌학사방)의 세례식도 가졌습니다. 빈타는 여자학생으로서는 이 마을에서 첫 세례자이고, 둘다 모슬렘배경이니 성령의 역사 하심에 민감하고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해 지도록, 주변 모슬렘들의 핍박과 공격에 안전을 두고 기도하고, 이들이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2. 화자라 교육센타는 리모델링과 더불어 교육센타에는 여러가지 행사와 교육의 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졸라찬양과 만딩고 찬양음반 봉헌식도 정원에서 가졌고, 컴퓨터교실과 여러 소규모의 컨퍼런스, 복음교단의 소규모 모임들이 이류어졌고 8-9 월에는 컴퓨터교실, 어린이 성경학교 교육, 졸라어 교사 교육을 합니다. 복음교단 사역자 알파목사님과 일다사모를 보내어 주셔서 5 월부터 교육센타에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맡은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3. 졸라어의 표준이 되는 졸라포니 성경번역, 출판, 봉헌식을 올려 드리도록 하신 은혜 감사! 성경보급을 위해 권서들을 통해 성경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감비아의 경제파탄은 성경 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경구매 운동으로 성경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후원자들을 만나도록 (성서공회의 가격 매김은 권당 1 만원 판매)
4. 졸라 문맹퇴치 사역 (졸라어 교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졸라포니지역과 새로이 도심지역에 약 28 개의 교실 운영 중인데 높은 호응도로 요청마을이 늘어나는 현상, 이에 지혜를 주시도록. 졸라어교본 2 와 산수책 교정을 마치면 28 개 교실에 들어갈 책 출판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교실 운영비와 출판지용도 채워지도록. 현재 신은경 선교사가 견습기간이나 수고로이 도우며 일을 배워가며 졸라어교실에 어린이 사역과 예수영화도 10 개 마을에 4 명의 코디들과 나갈 예정인데 팀들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도록.
5. 졸라어 문서 읽기 앱을 독일단기 선교사인 로빈의 시도로 알파벳 앱을 개발성공 해서 감사하며, 이 형제가 감비아 문교부 산하의 비정규교육기관의 장과 언어 컴퓨터 담당자 3 명을 교육에 기여함에 감사. 브라이언 선교사는 졸라문서읽기 앱개발 (졸라공동체 사전앱과 졸라 타 문서읽기 앱)을 개발 예정인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독일로 돌아오는 로빈 단기 선교사와 영국에 나와있는동안 소통을 잘 이루어 앱 개발에 성과가 있도록 그리고 앱 개발에 도움자들을 많이 붙여 주시도록.
6. 지난 6 월부터 탈링딩 운동장 콘크리트를 치던 중 여러번 일꾼들이 가버린 일로 어려움과 재정 손실도 있었지만 페인트 칠, 난간과 교실도 정비되고, 9 월 20 일 개교를 앞두고 학생들 등록 중이라는 에두워드 총회장이 소식을 전합니다. 웰링가라 리치학교는 기독학교로 초등부터 시험을 보고 성적순으로 받는 우수학교로 발전해서 탈링딩으로 중등을 옮기면 기독인재들을 배출하는 훌륭한 기독학교로 성장하도록. 6 개교실을 일단 오픈 예정으로 책걸상 붙어있는 것을 300 개가 후원, 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서 예정된 날짜에 개학이 되도록 (탄지기술학교 제작기안으로는 책걸상 한셋트에 60 달러임).
7. 성경읽기교실 9 월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실시 됩니다. 새로이 실시된 “다살라메” 마을의 중학교에 63 권의 굿뉴스 영어성경을 단기 선교사 로빈과 알파목사가 전달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 했습니다. 성경읽기를 위해 성경보급이 재정 확보가 되고 과 초교파적으로 운동이 일어 나도록. 알파목사님은 9 월에 화자라에서 다살라메 마을학생들돠 성경 읽기를 하기위해 방문예정인데 교통 안전을 위해.

7 월 2 일 졸라성경 포니성경을 봉헌 후에 브라이언 선교사와 저는 7 월 17 일에 예정대로 영국에 들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섬세히 길을 인도 하셔서 영국 뉴카슬에있는 친구집에 6 개월 머물게 되었습니다. 안식월과 사역을 각각

3 개월씩 나누어 하게 됩니다. 영육간에 건강을 돌보는 시기, 사역의 재점검, 장래사역에 관한 재 비젼 두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번역과 문서 사역으로만 달려온 지금 화자라 교육센타와 문서사역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도록 하실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선교사역의 연륜이 쌓이며 사역의 지경도 넓어지고 있어, 신실한 사역자들과 후원자들도 많이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화자라 리모델링과 운영을 감당해오며 심신의 위로가 필요한 브라이언 선교사의 건강 회복과 무릎수술 재검 및 여부를 알아보고 순적히 되어 내년 1 월 중순에 감비아로 귀임하도록 두손을 함께 모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10 월 한달간 브라이언 선교사와 저는 교회와 가족방문 예정두고 기도 중입니다. **고린도 전서 16.14 모든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주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면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고 이만 줄입니다.

브라이언과 심미란 선교사올림

전화(영국): 심미란(0044) 075994655 ; 이멜주소: miransim@gmail.com
주소: Mrs. MiRan Tanner (심미란),
c/o Margaret Sherratt, 21 Albert Drive, NE9 6EH, Gatehead, Tyne and Wear, The UK

Jola Language Bible Launched at Foni https://trumpet.gm/jola-language-bible-launched-at-foni/

